혁명

2011년 노동자대회 특보

1면 : 우리 99%의 직접행동 - 저항하자! 파업하자! 점거하자!

2면 : 유럽·미국의 파국은 자본주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3면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출범하다!

4면 : 자본가정당에 목매는 진보정당은 더 이상 노동자의 대안이 아니다.

자본가정당에 기대지 말고 노동자투쟁을 조직하자!

• 발행일 : 2011년 11월 12일 •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3가 70번지 3층 • 전화 : 02)6348-8318 • http://blog.jinbo.net/wrp

우리 99%의 직접행동 - 저항하자! 파업하자! 점거하자!

전 세계가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으로 들끓고 있다. 자본의 위기 전가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려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며 스스로의 직접행동으로 떨쳐 일어선 것이다. 1% 부자들과 자본가들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배가 터지고 있는데 99% 노동자 민중들은 '긴축', '내핍'이라는 이름으로 마른 수건 쥐어짜 듯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강요받고 있다. 특히 지금 온 세계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월가점령시위, 그리스를 활활 불태울 듯한 격렬한 가두투쟁과 총파업은 이 분노의 화살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와 청년, 빈민들은 외친다."자본주의 이제 그만!", "자본주의가 악의 근원이다!.", "자본주의에 죽음을!", "자본주의를 없애라!"

자본주의를 향한 99%의 분노

한국에서는 이미 1998년 IMF 이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쳐 현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노동자 민중들이 경제위기의 고통을 죄다 뒤집어썼다. 정리해고로, 비정규직 양산으로, 청년실업 만연으로, 임금삭감과 단협 축소로 이미 긴축 내핍을 혹독하게 강요받았다. 반면 부자들과 자본가들은 경제위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곳간을 엄청나게 늘렸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도 20 대 80의 사회가 이제 1% 대 99%의 사회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갈 데까지 갔다. 1% 재벌 대기업과 은행 등 금융자본가들은 매년 최대 흑자와 최대 실적, 최대 수익을 경신해 나가며 수백조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데 반해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더욱더 쪼그라들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를 입증하듯 죽음으로 내모는 정리해고가 계속되고 있고, 비정규직이 900만, 실질실업이 20%에 육박하고 있다. 등록금 1천만원, 물가폭등, 전세대란, 가계부채 급증 등등, 99%의 분노가 쌓일 대로 쌓여 왔다.

제도정치권과 선거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인 직접행동

자본주의를 향한 이 99%의 분노는 한국에서도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는 구호를 대중들이 자발적인 직접행동으로 사회화시킨 희망버스 운동이 이미 그러한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월가시위가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결합하여 오클랜드에서 아래로부터의 연대에 바탕한 총파업을 만들어간 것처럼 희망버스 운동도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 동안 관료화되고 제도화된 노동조합운동을 아래로부터 현장노동자들의 주도와 직접행동에 바탕한 평조합원운동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계기와 자극을 주고 있다.

오늘날 반자본주의 투쟁은 어디서든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연대와 자발적인 직접행동에서 움터 나오고 있다. 희망버스 운동의 '희망'은 여기에 있지,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지도부의 야권연대나 반MB 선거심판에 있지 않다. 2008년 촛불투쟁의 동력을 이룬 자발성과 창조성과 아래로부터의 연대 정신이 희망버스에 이어 지금 한미FTA 저지투쟁에서 다시 발산되고 있다. 애초 이 투쟁이 월가시위처럼 대중들의 직접행동으로 더욱 번져나가고 아래로부터의 연대에 바탕한 총파업 운동으로 상승 발전할 잠재력을 띠고 있음에도 현재 야권연대 세력들에 의해 '반MB 선거 심판'으로 축소 왜곡될 위험에 있다.

한미FTA 반대투쟁이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에 갇혀 제도정치권의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고 대중적인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선 현 시기 비정규직, 정리해고, 등록금, 청년실업, 물가폭등에 항의하는 직접행동과 연결되고 결합해야 한다. 기존정치권에 의존하지 말고 선거 기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모든 투쟁 요구들을 걸고 시위와 파업, 점거에 나서자. 이집트, 스페인, 그리스, 미국에서 시위대처럼 우리도 시청광장을 점거하여 대중총회와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각각의 투쟁들을 총괄 조정하면서 우리 99%의 요구를 모아보자.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우리 99%의 직접행동을 조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래와 같은 요구안을 제출한다. 이 〈99% 10대 요구〉를 중심으로 모두 함께 저항하자! 파업하자! 점거하자! **혁명**

99% 직접행동 10대 요구

△ 일체의 해고 금지! 정리해고제 폐지!
△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 6시간 노동제를 통한 실업 해소!
△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한미FTA 저지!
△ 물가 폭등에 따른 생활임금 보장! 무상주거!
△ 등록금 폐지, 대학 무상교육 전면 실시!
△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 은행 및 금융사 국유화! 노동자통제!
△ 재벌 몰수 국유화! 노동자통제!
△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부!

유럽 · 미국의 파국은 자본주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10월2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점거 총회는 1,600여명이 모여 도시 총파업 제안을 했다. 11월2일 오클랜드 총파업은 성사됐다. 주요 은행, 공장, 상점, 학교가 문을 닫았다. 총파업에 참가한 10만 명의 파업 시위대중은 물류 항구를 봉쇄했다.

유럽, 미국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2008년 자본주의 금융위기, 경제 파탄을 맞은 각 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긴축재정, 정리해고, 복지, 임금, 교육 예산 삭감 등을 통해 노동자와 청년들을 더욱 쥐어짰다.

해결할 수 없는 자본주의 경제위기, 깨진 독에 물 붓기!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문에 자본가와 각국 정부는 긴축에 나서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구제 금융의 대가로 가혹한 긴축 조치를 강요당하고 있다. 프랑스는 G20 정상회담 직후 프랑스는 11월 7일 2012년도 긴축조치를 담은 예산안을 발표했다. 영국도 최근 대학생 투쟁을 촉발시킨 등록금 인상을 비롯해 과격한 긴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탈리아도 국채 금리가 7%를 웃돌며 국가부도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심각한 것은 현재 구제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치들이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IMF가 구제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경제위기의 책임자인 자국 은행과 연기금, 그리고 채권자이다. 자본가들은 현재의 위기를 틈타 오히려 국제 금융자본, 은행, 거대 초국적 자본의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일련의 '구제조치'들은 EU 경제 정책을 독일과 프랑스의 수중에 집중시키면서, 각 국가의 민주적 결정마저도 뒤엎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미국은 2008년 이후 구제금융을 하면서 국가재정이 파탄 났다. 오바마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시켰다. 미국은 치솟는 실업과 하루하루를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

파탄 난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유럽 · 미국 노동자 청년들의 투쟁

결국 현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자계급 투쟁뿐이다.

2010년 12월 튀니지의 한 청년의 분신으로 촉발된 투쟁은 중동 지역 민주화 투쟁으로 들불처럼 번졌고, 유럽에선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에 분노한 청년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특히 국가 재정 위기에 처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에서는 격렬한 청년들의 시위와 노동자 총파업 투쟁이 전개됐다. 세계 자본주의 심장인 미국 월스트리트의 점거 시위 형태는 80여 개국, 1,500여개 도시로 확산됐다. 미국 월가점거투쟁 구호인 '1%에 맞선 99%의 투쟁'은 이제 전 세계적인 구호가 되었다.

준혁명적 정세를 맞고 있는 그리스에서는 아테네와 다른 도시들에서도 '분노한 자들'의 운동이 성장하면서 광장 점거와 함께 노동자들의 직접 행동이 지역과 현장에서 행동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역동적인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속에서 그리스의 정치 지형도 급변하고 있다. 집권 사회당의 당원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지지도도 급락하여 최근 15%대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양대 노조가 사회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상당수 산하 노조들은 공식적인 지지를 철회했다.

1% 자본가에 맞선 99% 투쟁 확산이 필요하다.

월스트리트에 울려 퍼진 '1%에 맞선 99% 투쟁'은 1% 부자들을 위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전 세계에 공감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혁명적 방책을 통해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아니면 노동자들은 더욱 고통에 빠진다. 다른 선택은 없다. 대중투쟁을 통해 반자본주의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아직까지 실질적인 99%의 투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점거투쟁에서 대중적인 총파업' 투쟁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점거 총회는 1,600여명이 모여 도시 총파업 제안을 했다. 총파업 제안은 일주일 뒤 현실화됐다. 오클랜드 은행, 공장, 상점, 학교가 문을 닫았다. 총파업에 참가한 10만 명의 파업 시위대중은 물류 항구를 봉쇄해서, 항만, 트럭 노동자의 뜨거운 지지를 얻었다. 이처럼 노동자계급의 대대적인 총파업 투쟁이 확산되어야 한다.

한국 노동자계급은 미국 오클랜드 총파업 투쟁에서 배워야 한다. 민주노총 관료들의 총파업 투쟁 지침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대중총회에서 파업투쟁을 공장 안팎에서 제기하고 실현시켜야 한다.

또한 99% 투쟁 확산을 위해서는 '월가의 금융자본'만이 잘못됐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월가의 금융 자본가는 자본의 대리인일 뿐이다. 단지 금융자본가의 탐욕만을 문제 삼는다면, 무늬만 바꾼 자본가 세력이 다시 등장할 뿐이다. 현 자본주의 경제파탄은 1% 자본가를 위해 99%가 희생되는 자본주의 체제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최근 미 영 제국주의 세력들은 이라크 전쟁에 이어 다시금 대 이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전 세계 인류를 빈곤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 **혁명**

'1%에 맞선 99% 투쟁' 은 1% 부자들을 위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분노다. 반자본주의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 그 역사적 첫발을 내딛으며 동지들 앞에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10월29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 정식 출범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위기 속에서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혁명'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공산주의 강령 실현과 노동자혁명당 건설이라는 목표에 담아 공개적이고 공세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자본가계급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계급 해방투쟁의 무기 혁명강령과 혁명당을 공급하기 위해 온힘을 다해 투쟁할 것입니다.

* 아래는 출범총회에서 채택한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강령 초안〉입니다. 전체 내용은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블로그(http://blog.jinbo.net/wrp)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혁명**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강령 초안

Ⅰ장. 공산주의혁명을 위하여

1. 자본주의와 공산주의혁명
2.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공산주의로의 이행

Ⅱ장. 우리가 건설할 공산주의

1.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과 우리가 건설할 공산주의
2. 한국에서 공산주의 혁명

Ⅲ장.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위한 이행요구

1. 비정규직 철폐
2. 임금 ·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3. 민주적 제권리
   - ■ 집회 · 시위 · 결사 · 표현의 자유!
   - ■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 ■ 국보법 철폐! 국정원 등 폭압기구 해체!
4. 여성억압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억압에 맞선 투쟁
   1) 여성해방
   2) 성소수자 · 청소년 · 장애인 · 이주노동자에 대한 억압 · 차별 철폐
5. 환경파괴에 맞선 노동자통제 투쟁
6.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평조합원운동 건설
7. 노동자 생산통제
8. 몰수 · 국유화
9.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
10. 노동자 정당방위대 / 노동자 민병대
11. 노동자정부
12. 노동자평의회와 봉기

출범선언문

경제파탄과 전쟁, 환경재앙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자본주의가 그 사멸의 진통 속에 들어갔다. 다시금 '사회주의냐 야만이냐'가 제기되고 있는 오늘, 우리는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의 역사적인 출범을 결연한 다짐으로 온 세상에 선언한다.

자본주의가 끝 모를 위기에 빠져들면서, 혁명이 더 이상 책 속에나 있는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전 세계 자본가들은 위기 탈출을 위해 노동자 민중들에 대한 착취와 폭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가 가져오는 고통과 자본가들의 위기 전가 공세에 맞서 노동자들도 전 세계적으로 저항과 투쟁에 나서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과 인도, 동아시아에서, 온 대륙과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의 물결이 솟구치고 있다.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함께 하면서 이 투쟁을 자본주의 철폐 · 노동자계급 해방세상을 위한 투쟁으로 이끌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에 앞장서고자 한다.

썩어문드러져 가는 자본주의가 내뿜는 사멸의 단말마가 온통 노동자 민중들의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는 오늘, 우리는 노동자혁명만이 이 끝없이 계속되는 고통을 끝장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세계의 수억 수천만 인민들에게 자본주의 체제의 위신은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그러나 또한 현 자본주의 위기는 기존 노동자운동 지도부들의 정책과 실천에서 썩어빠지고 낡아빠진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조합 관료 지도부들과 개량주의 진보정당들의 이러한 썩고 낡은 지도력을 새로운 혁명적 지도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그 동안의 투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상황이다. 이와 같이 현 위기는 혁명적 사회주의의 귀환을 재촉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혁명적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뜨거운 초미의 현안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은 격렬한 계급전쟁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와 같은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해결해야 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시간이다.

오늘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의 출범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이 땅 노동자계급이 자본과 권력의 탄압을 뚫고 전진해 온 위대한 도정에 함께 해온 남한 사회주의운동의 새로운 혁명적 출발이다.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의회주의와 대리주의, 자본가 정당과의 계급협조로 왜곡 후퇴시킨 진보정당 운동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서 노동자혁명당을 이 땅에 기필코 세워낼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의 출범이 노동자계급의 가슴 속에 노동자권력을 향한 열망을 다시 불 지필 참된 희망으로 다가가도록 하겠다는 결의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우리의 결의는 그 동안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계급 운동 속에서 대담하게 사회주의 강령을 내걸고 공공연한 사회주의운동을 펼쳐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의 출범은 써클주의 · 조합주의를 딛고 새로운 당 운동의 단계를 열어젖히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을 내걸지만 강령과 실천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노동조합운동 뒤에 자신을 숨기고서 활동하는 노동조합 배후정치와 확실한 단절을 이뤄내겠다는 결연한 자기선언이다.

노동자계급운동의 새로운 대안 지도력으로 우뚝 설 노동자혁명당 건설! 그 길에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동지들은 헌신적으로 선두에서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이 결의를 오늘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출범선언에 담아 노동자계급 앞에 엄숙히 밝힌다.

2011년 10월 29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자본가정당에 목매는 진보정당은 더 이상 노동자의 대안이 아니다.

진보정당이 노동자 정당이라면, 노동자들의 철천지 원수인 자본가 정당으로부터 단절하라!

우리를 포함한 사회주의 세력은 물론, 투쟁하는 현장의 노동자들도 그동안 진보정당을 향해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는 요구를 거듭해서 외쳐왔다. 그 뿐이 아니다. 심지어 진보정당 안에서도 자본가정당과 통합하거나 연합하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반대가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지금 흘러가는 현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진보정당이 끝내 자본가정당과 통합 또는 연합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진보정당은 독자적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진보정당 지도부의 다수가 그 길을 향해 걷고 있으며 노동자대중을 그 길로 이끌고 있다. 그들 지도부는 그것만이 노동자대중을 위하는 것이며 노동자대중의 다수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아직 자본가정당과 단절할 만큼의 힘이 없으며 자본가정당과의 통합이나 연합을 통해 힘을 키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자본가정당과 통합, 연합을 하더라도 독자적인 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가정당을 진보 쪽으로 끌어 올 수 있다는 호기마저 부린 바 있다.

그러나 이 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지금 진보정당은 그 존재감마저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다. 지금대로라면 진보정당은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자본가정당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아니 이미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다. 진보정당 지도부가 그토록 자본가정당과 단절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지난 10년 이상 노동자대중은 진보정당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 특히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진보정당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지와 지원을 했으며 민주노총 내부에서조차 숱하게 문제제기한 배타적 지지를 굳건하게 보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은 분당으로 화답했다. 민주노동당 분당은 그 표면적 이유가 어찌됐든 그 실상은 진보정당이 실패했음을 드러낸 결정적 증거였다. 진보정당이 자본가정당의 2중대 역할을 한 결과가 바로 분당에 이르게 된 핵심적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뒤 사태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갔다. 마치 분당이 노동자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의 원인인 것처럼 둔갑하였다. 물론 진보정당이 분열됨으로써 현장에서 그 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아무리 다시 하나의 정당이 되더라도 자본가정당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즉 민주대연합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당 이전과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민주대연합이 전면화 됨으로써 분당 이전보다도 노동자계급이 자본가정당에게 더 기대하고 의존하는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진보정당이 다시 통합되느냐가 아니라 자본가정당과 단절할 수 있느냐이다. 물론 민주대연합을 포기하는 것이 곧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는 전부는 될 수 없다. 단지 최소한의 전제이자 필요일 뿐이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당을 찾아갈 수 있게 하자!

오늘날 노동자대중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방치한 주역이 바로 진보정당 지도부들이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노동자대중의 요구와 투쟁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노동자대중의 정치역량을 강화하려 하지 않았다. 반대로 투쟁하는 노동자를 자본가계급과 그들 정당의 요구 아래 묶어두기에 급급했을 뿐이다. 노동자계급을 투쟁과 정치의 주체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대신에 노동자계급을 해체하고 개별적인 유권자로 남아 있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민노당 등 진보정당은 이미 그 노선과 정체성에서 노동자 정당이길 포기하고 자본가 진영으로 넘어간 것이다. 다만 그 주된 사회적 기반을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묘하게도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노동자당인 사회주의혁명정당 건설을 통해 노동자계급 사이에서 이 진보정당의 반노동자적 본질이 실천적으로 폭로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선진활동가들의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혁명**

자본가 정당에 기대지 말고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자!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또 한 번 만신창이가 됐다. 진보정당들은 민주당과 공동의 선대본을 꾸리고 노골적으로 박원순 선거운동을 했다. 시장이 된 박원순은 예전부터 노동조합을 경멸했던 대가로 자본으로부터 기부금을 챙기고,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 당선시킨 이력을 가졌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죽음 – 자본가정당과 선거연합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가정당의 한 분파를 지지하고 함께 하는 것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시궁창에 빠뜨리는 짓이다. 불행하게도 서울시장 선거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얼마 전까지 진보신당이었던 노심조(노회찬, 심상정, 조승수)는 국참당과 지분 문제만 해결되면 금방이라도 통합할 기세다. 국참당이 누군가. 노무현 정권을 계승하는 당이 아닌가. 노무현 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한 두산중공업의 배달호열사,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곽재규 열사, 농민 전용철 홍덕표 열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국참당과 통합이라니.

반이명박, 반한나라당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노동자들과 농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했거나 민주당–진보정당의 연합 지자체들에서 노동자문제와 철거민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역적 차원이라 문제인가?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비정규직, 정리해고 양산,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한 바 있다. 이처럼 반노동자적인 행위를 일삼았던 자본가정당과 손 붙잡고, 이미 난도질 당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땅 속에 매장하려 하고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부활 – 노동자 계급의 당면 투쟁 조직화

이제 결론은 명백하다. 레임덕에 빠진 이명박 정권에 맞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리해고 분쇄, 악화되고 있는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진행시켜가야 된다. 희망버스 투쟁에서 보았듯이 노동자들의 계급적 투쟁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들 스스로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세는 결코 불리하지 않다.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박원순이 약속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는 결코 서울시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가만있으면 자본가들은 결코 들어줄 수 없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박원순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규모도 최소화할 것이다.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자들의 경우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를 내걸고 즉각적으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들은 서울시 산하기관 이외의 노동자들을 고무해서 자본에 맞선 공동의 투쟁에 나설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전체 노동자들의 계급적 요구를 내걸고 진행되는 투쟁이야말로 자본가계급에 맞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다른 이름이다.